

# 現行 襖衣에 關한 研究 ( I )

東宇專門大學 女性敎養科  
助敎授 劉 寬 順

目 次	
I. 緒 論	Ⅲ. 衣次와 色
Ⅱ. 襖衣의 種類	Ⅳ. 用語
1. 禮葬	1. 幘目
(1) 男子의 襖衣	2. 五囊
(2) 女子의 襖衣	3. 매장배
2. 俗葬	4. 襖衣
(1) 男子의 襖衣	5. 圓衫, 斂, 補空, 握手
(2) 女子의 襖衣	V. 結 論
	參考文獻

## I. 緒 論

襖衣가 文獻上에 規範으로 提示되어 시행되어 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 계층에서는 그 規範과는 달리 襖衣에 대한 실태가 다양하였을 것이다. 이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 階級과 身分, 家門, 또는 특히 貧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고,<sup>1) 4)</sup> 時代가 社會的으로 변화함에 따라 襖衣의 풍습도 직접 葬儀社에 의뢰하여 모든 절차를 쉬운 쪽으로 진행시키는 등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現行 襖衣에 대한 內容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本 研究에서는 全國 規模의 우리나라 現行 襖衣의 實態를 통하여 衣次, 色, 用語 등을 고찰하고 襖衣 種類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本 研究의 資料는 全國 規模로 이루어진 全國民

俗綜合調查報告書와 各 地方의 民俗關係資料〈表 1〉, 그리고 本人의 現地 面談調查資料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本人의 現地 調查의 調查時期는 1989年 7月부터 1992年 9月까지의 기간이며, 調查 對象者〈表 2〉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한 地域에서 오랫동안 居住한 사람을 中心 對象으로 하였고, 各 道의 中心地域의 襖衣전문점과 葬儀社의 襖衣 담당자들과의 面談을 통해서 現代의 推移를 살펴 보았으며, 面談 대상자들의 연령기입은 面談한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面談調查 對象地域의 分布에 대해서는 우선 各道別로 禮의 뿌리가 깊은 地域을 선정 한 후,<sup>5)</sup> 各市와 郡의 文化院과 鄉校를 통하여 面談자에 대한 資料를 제공받았으며, 그 以外는 人的交流가 닿는 곳을 調查地域으로 선택하였다. 面談調查地域의

1) 全英淑, “壽衣에 關한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第1卷 2號. (서울: 韓國衣類學會, 1977)

2) 權桂淳, 우리옷 변천과 재봉, 서울, 修學社, 1983. p. 180.

3) 全英淑編, 韓國服飾史 辭典, 서울, 民文庫, 1988. p. 309.

4)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85. p. 143.

5) 調查地의 選定은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 綜合調查報告書(禮節篇), 서울, 文化公報部, 1987)의 內容을 參酌하였음.

<表 1> 文獻에 나타난 調査對象地

調 査 地 名		調 査 者	年 代	出 典
咸 北	會寧郡	會寧郡民會	1978	「會寧郡誌」
		張 哲 秀	198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12冊
咸 南	會寧郡, 학성군	張 哲 秀	-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정평군, 북청군, 안변군			
黃 海 平 北 平 南	鳳山面, 松禾郡	張 哲 秀	-	「 - 」11冊
	平原郡 博川郡			
서 울		張 哲 秀	1979	「 - 」10冊
京 畿	始興郡 蘇萊面 浦里 楊平郡 江下面 聖德理 安城郡, 江華	-	1977	「 - 」9冊
		李 柱 媛	1985	「 - 」17冊
江 原	麟蹄郡 北面 龍垜里 洪川郡 西面 八峰里 橫城郡 隅川面 正庵里 旌善郡 北面 餘極里 春川市 江陵市 三陟郡 江陵市 江原道  春川市 華川郡	張 哲 秀	1976	「 - 」8冊
		姜 淳 第	1985	「 - 」17冊
		柳 喜 卿	1985	「 - 」17冊
		-	1985	「三陟郡誌」
		成 者 姬	1980	「論叢考」, 關東大「論文集」第8輯
		崔 承 基	1977	「太白의 禮俗(上)」
		李 遠 喆	1977	「太白의 禮俗(下)」
		崔 喆 洙		
		白 弘 基	1984	「春州誌」
		華川文化院	1988	「華川郡誌」
忠 北	丹陽郡 大崗面 龍夫院里 槐山郡 清安面 雲谷里 中源郡 嚴政面 牧溪里 清原郡 玉山面 永同郡 陽山面 鎮川 陰城	張 哲 秀	1974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7冊
		劉 頌 玉	1985	「 - 」17冊
		李 鐘 哲	1980	「韓國民俗學」12輯
		張 哲 秀	1973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6冊
		劉 頌 玉	1985	「 - 」17冊
		李 光 奎	1972	「 - 」4冊
慶 北	星州郡 安浦洞 安東郡 陶山面 土溪洞 - 臨河面 琴沼洞 月城郡 江東面 良佐洞 盈德郡 盈德面 老勿洞 安東 晉川 安東市 大邱市  慶尙北道	李 京 子	1985	「 - 」17冊
		金 美 重	1985	「 - 」17冊
		嶺 南 大	1987	「安東誌」
		人 文 科 學 所	1988	「大邱의 禮樂」
		張 哲 秀	1988	「慶北 北部地域의 傳統文化」
		崔 吉 城	1969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2冊
		趙 孝 順	1985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17冊
慶 南	釜山市 東萊區 北面 杜邱洞 昌寧郡 靈山面 竹砂里 咸陽郡 池谷面 介坪里 統營郡 蛇梁面 玉洞 南海軍 昌善面 堂底里 山淸郡	李 光 奎	1971	「 - 」3冊
		張 瑄 鎮	1988	「國語國文學」釜山大
		李 光 奎	1968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1冊
全 南	求禮郡 山洞面 麗川郡 三山面 草島里 - 德村里 羅州	李 光 奎	1968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1冊
		金 正 子	1985	「 - 」17冊
濟 州	北濟州郡 涯月面 上貴里 濟州道 全域	李 光 奎	1973	「 - 」5冊
		高 富 子	1985	「 - 」17冊

<表 2> 調査地域 및 調査對象者의 人的事項

번호	조사지역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번호	조사지역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1	강원도	엄구자	여	49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7		양옥선	-	7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		변동선	-	57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8		정순봉	-	7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3		정화자	-	86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39		임 무	남	4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4		허씨(양친)	-	94	강원도 강릉시 교동	40		이석관	-	78	전북 전주시 서신동
5		심연섭	-	57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41		이하영	-	56	전북 전주시 풍남동
6		성기희	-	69	강원도 강릉시	42		이태운	-	69	전북 전주시 금암동
7		김일산	남	72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43	경상남도	이명길	-	68	경남 진주시
8		강봉순	여	6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44		하영복	-	71	경남 진양군 수곡면
9		김화목	-	77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45		강두상	-	71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0		박해옥	-	74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46		강병표	-	66	경남 진주시 상대동
11		강순녀	-	6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47		이병순	여	63	경남 진주시 상대동
12		전경남	-	75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48		강수갑	남	67	경남 진양군 금산면
13		최필순	-	57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49		허관순	여	60	경남 진주시 대안동
14		이종화	-	87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50		이철이	-	75	경남 고성군 상리면
15		안춘명	-	61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1	경상북도	권단연	-	64	경북 안동시 안흥동
16	서울	이경옥	-	7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2		이혜선	남	63	경북 안동군 와룡면
17		정한진	남	75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3		김송자	여	52	경북 안동시 안흥동
18		박란규	여	59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54		김동숙	-	57	경북 안동시 안흥동
19		정정환	-	78	서울시 성북구 동서문동	55		한월순	-	69	경북 안동시 안흥동
20		오한예	-	75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56		신금순	-	57	경북 안동시 안흥동
21	전라남도	박정희	-	55	전남 순천시 중앙동	57		조분수	-	62	경북 안동시 안흥동
22		이춘영	남	81	전남 승주군 상담면	58		박필술	-	74	경북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
23		최복녀	여	77	전남 승주군 상담면	59		김효중	-	63	경북 안동군
24		장기선	남	84	전남 순천시 금곡동	60		김시우	남	65	경북 안동군
25		최동식	-	81	전남 승주군	61	충청남도	류영렬	-	60	충남 대전시 동구 인동
26		배병선	-	68	전남 승주군	62		이성우	-	54	충남 대전시 동구원동
27		조휴문	남	67	전남 승주군 주암면	63		권정순	여	51	충남 대전시 동구원동
28		유계순	여	64	전남 승주군 주암면	64		박성철	남	75	충남 대전시 가양동
29		이갑순	-	77	전남 순천시 남정동	65		김명수	-	71	충남 대전시 중구 중촌동
30		최난이	-	88	전남 순천시 남정동	66	충청북도	박종민	-	57	충북 청주시 수의동
31		정순남	-	81	전남 순천시 남정동	67		김철규	-	70	충북 청주시 모흥동
32		강소애	-	72	전남 순천시 남정동	68		조길면	-	52	충북 청주시 서운동
33		신상희	-	60	전남 승주군 중앙동	69		오영균	여	52	충북 청주시 서운동
34		문영휴	-	53	전남 승주군 매곡동	70		송해만	남	64	충북 청주시 수의동
35		정봉기	남	50	전남 승주군 동의동	71		조성임	여	64	충북 청주시 수의동
36	전라북도	김철희	여	4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分布는 서울, 강원도의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의 대전시, 충청북도의 청주시, 전라남도의 순천시, 승주군, 전라북도의 전주시, 경상남도의 진주시, 진양군, 고성군, 경상북도의 안동시, 안동군의 풍천면 와룡면 등을 調査對象地域으로 선정하여 面談을 실시하였다. 제주도는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文獻에 나타난 內容을 인용하여 대신하였다.

## II. 襖衣의 種類

現行 襖衣의 實態를 서술함에 있어 禮葬과 俗葬으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男子의 경우는 深衣나 道袍를 갖추는 경우, 女子는 圖衫을 갖추는 경우를 禮葬에 포함시켰고, 그 외에는 俗葬으로 포함시켜 서술하였다.

## 1. 禮葬

## (1) 男子의 襪衣

古禮를 따른 男子襪衣의 種類는 적삼, 저고리, 속바지, 바지, 두루마기, 道袍, 道袍띠, 深衣(또는 鶴氅衣), 버선, 幘目, 握手, 베개, 天衾, 地褥, 大斂布, 小斂布, 行纏, 五囊, 허리띠, 댄님, 幅巾, 大斂衾, 小斂衾, 과두(褰頭), 과두(褰肚), 綱巾 등이 다.<sup>6)·8)</sup> 襪衣전문점에서 맞추는 襪衣의 種類는 위에 제시한 종류와 비슷하긴 하나, 深衣를 입지 않고 두루마기, 道袍까지 갖춘 경우,<sup>9)·11)</sup> 또는 道袍를 입지않고 두루마기, 深衣까지 갖춘 경우<sup>12)</sup>가 있다.

20년 이상 襪衣를 제작해 온 김송자씨는 “오름 儀禮에 따른 禮葬에서는 道袍, 두루마기, 바지, 저고리, 속바지, 적삼, 天衾, 地褥, 褰肚, 握手, 버선, 五囊, 베개, 홀이불(斂布代用)을 갖춘다”고 하여<sup>13)</sup> 禮葬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深衣는 관가에 출입하거나, 벼슬이 있거나, 학문이 높은 사람만이 着用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기타 사람은 深衣를 착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14)</sup> 道袍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禮를 알고 존중하는 사람에 한하여 입을 수 있다.<sup>15)·16)</sup> 고 한다.

## (2) 女子의 襪衣

禮葬의 女子襪衣의 種類는 적삼, 저고리(삼작: 연두색 삼회장 저고리, 노란색 회장 저고리, 분홍색 저고리),<sup>17)·18)</sup> 속속곳, 바지, 단속곳, 속치마, 걸치마, 두루마기, 唐衣, 圓衫, 圓衫띠, 버선, 幘目, 握手, 베개, 天衾, 地褥, 大斂布, 小斂布, 五囊, 大斂衾, 小斂衾, 과두(褰肚), 과두(褰頭), 족두리 등이다.<sup>19)·20)</sup> 이 중에서 唐衣와 족두리를 갖추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남자가 道袍를 갖추는 것에反하여 女子가 圓衫을 갖추는 경우는 적었다.

禮葬에서 圓衫을 갖추지만 두루마기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男尊女卑 사상에 의거한 것으로, 남자가 입는 두루마기를 여자가 입는다는 것은 여자를 높이는 의미이기 때문<sup>21)·28)</sup>이며, 朝鮮朝에서는 내외법에 의하여 外出이 금지되다시피 되자 두루마기의 필요성이 없어 입지 않게 되었던 것에 基因한다.

五囊은 보통 5개인데,<sup>29)·32)</sup> 4개를 하는 경우<sup>33)</sup>와 3개<sup>34)</sup>, 6개<sup>35)</sup>, 8개까지 하는 경우<sup>36)</sup>가 있었다.

6) 정정완(女), 78세, 서울 성북구 동서문동 거주, 1990. 7. 14. 본인과 면담.

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서울편), 서울, 文化公報部, 1979. p. 67.

8) 上揭書(강원도편), 1977. p. 400.

9) 同 上.

10) 심연섭(女), 57세,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거주, 1989. 7. 20. 본인과 면담.

11) 김일산(男), 72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거주, 1989. 7. 21. 본인과 면담.

12)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前揭書(충청북도편), 1976. pp. 358-359.

13) 김송자(女), 52세, 경북 안동시 안동동 거주, 1990. 1. 18. 본인과 면담.

14) 김효중(女), 63, 경북 안동군 거주, 1990. 2. 19. 본인과 면담.

15) 류영렬(男), 60, 충남 대전시 동구 인동 거주, 1990. 2. 12. 본인과 면담.

16) 김명수(男), 71세, 충남 대전시 중구 중촌동 거주, 1990. 2. 12. 본인과 면담.

17)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大觀. 第二卷. 서울,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0. p. 249.

18) 高廷其, 冠婚과 喪祭. 서울, 後里出版社, 1982. p. 161.

19)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前揭書(서울편) : p. 67, 강원도편 : p. 97. p. 400, 충청북도편 : pp. 358-359, 의생활편 : 충청도 p. 164).

20) 박란규(女), 59세, 서울 동작구 상도4동 거주, 1990. 2. 10. 본인과 면담.

21) 이해선(男), 63세, 경북 안동군 와룡면 거주, 1990. 1. 18. 본인과 면담.

22) 박필술(女), 74세, 경북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 거주, 1990. 2. 19. 본인과 면담

23) 이명길(男), 68, 경남 진주시 거주, 1990. 1. 17. 본인과 면담.

24) 하영복(男), 71세, 경남 진양군 수곡면 거주, 1990. 1. 17. 본인과 면담.

25) 강두상(男), 71세,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거주, 1990. 1. 17. 본인과 면담.

26) 이갑순(女), 77세, 전남 순천시 남정동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27) 문영희(女), 53세, 전남 순천시 매곡동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28) 정봉기(男), 50세, 전남 순천시 동의동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29) 변동선(女), 57세,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거주, 1989. 6. 30. 본인과 면담.

30) 송해만(男), 64세, 충북 청주시 수의동 거주, 1990. 2. 11. 본인과 면담.

31) 허관순(女), 60세, 경남 진주시 대안동 거주, 1990. 1. 17. 본인과 면담.

32) 이춘영(男), 81세, 전남 승주군 상당면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項帶(턱받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목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sup>37)</sup>

面談者 중에서 본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種類 중 한 두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준비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남을 제외한 경우나<sup>38)</sup> 버선을 제외한 경우 등이다.<sup>39)·41)</sup> 이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이거나, 알면서도 그렇게 行하였거나, 빠진 것이 있어야 상을 당했을 때 자손들이 채울 수 있고, 한가지씩은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였다.

圓衫은 남자의 道袍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안이나 예법을 존중하는 집에서 입고 있다고 하였고,<sup>42)</sup> 남자가 죽었을 때 襖衣로서 道袍를 입고 가면 여자도 圓衫을 입지만, 남자가 道袍를 입지 않았으면 여자도 圓衫을 입지 않는다고<sup>43)·46)</sup> 하였다. 또한 남자가 죽은 다음 여자가 죽으면 來世에서 잘 보이라고 圓衫을 입히고 화장도 시키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죽으면 圓衫을 입히지 않는데, 이것은 來世에서 再婚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sup>47)</sup>이라 했다.

襖衣로 지어놓은 圓衫은 신부 세 사람에게 無償으로 빌려주는 것이 풍속으로 되어 있으나 이런 풍속은 來世에 속하는 옷을 가지고 現世에 선행을 함으로써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sup>48)</sup>

## 2. 俗葬

### (1) 男子의 襖衣

俗葬의 男子襖衣의 種類를 보면 深衣나 道袍는 입지 않으며, 種類는 赤衫, 저고리, 속바지, 바지, 두루마기, 幅巾, 베개, 幘目, 댕님, 天衾, 地褥, 斂布, 握手, 五囊, 버선<sup>49)</sup> 등이거나, 赤衫, 저고리, 속바지, 바지, 두루마기, 幘目, 握手, 버선, 五囊<sup>50)</sup> 등이고, 地域에 따라서 赤衫,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만 입히는 곳도 있다.<sup>51)</sup>

### (2) 女子의 襖衣

俗葬의 女子襖衣의 種類는 圓衫은 입지 않으며, 赤衫,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 베개, 天衾, 地褥, 幘目, 斂布, 握手, 五囊, 비선<sup>52)</sup> 등이며, 두루마기를 제외하고 저고리, 바지, 치마, 幘目, 握手, 버선, 斂布를 갖추는 경우<sup>53)</sup>와 赤衫, 속저고리, 저고리, 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속치마, 걸치마를 갖추는 경우<sup>54)</sup>가 있었다.

男·女俗葬의 襖衣의 種類를 볼 때 최소한의 공통적인 種類로 男子는 속바지, 바지, 적삼, 저고리, 두루마기이며, 女子는 적삼, 저고리, 바지, 치마 등이었다.

男·女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옷감의 질을 낮추더라도 幘目, 握手, 五囊, 이불, 褥, 베개, 斂

33) 박정희(女), 55세, 전남 순천시 중앙동 거주, 1990. 1. 15. 본인과 면담.

34) 김동숙(女), 57세, 경북 안동시 안흥동 거주, 1990. 1. 18. 본인과 면담.

3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前掲書(충청북도편), p. 359.

36) 成香姬, “殮葬考”, 論文集, 제8집.(江陵: 關東大, 1980) p. 450.

37) 註23), 28), 31) 參照.

38) 양천희씨(女), 94세, 강원도 강릉시 교동 거주, 1989. 7. 2. 본인과 면담.

39) 이경옥(女), 72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거주, 1989. 7. 30. 본인과 면담.

40) 정화자(女), 86세,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거주, 1989. 7. 2. 본인과 면담.

41) 정한진(男), 75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거주, 1989. 7. 30. 본인과 면담.

42) 註15) 參照.

43) 박종민(男), 57세, 충북 청주시 수의동 거주, 1990. 2. 11. 본인과 면담.

44) 김철규(男), 70세, 충북 청주시 모충동 거주, 1990. 2. 11. 본인과 면담.

45) 이성우(男), 54세, 충남 대전시 동구 원동 거주, 1990. 2. 12. 본인과 면담.

46) 최월순(女), 57세,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거주, 1992. 9. 29. 본인과 면담.

47) 오영균(女), 52세, 충북 청주시 서운동 거주, 1990. 2. 11. 본인과 면담.

48) 高福男, “韓國における襖衣の研究”, 東アジアにおける宗教と民俗.(東京: 吉川弘文館, 1981) p. 220.

49) 엄구자(女), 49세,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거주, 1989. 6. 30. 본인과 면담.

5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前掲書(강원도편: p. 97, 서울편: p. 67).

51) 上掲書(전라남도 편), p. 456.

52) 註49) 參照.

5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前掲書(서울편), p. 67.

54) 上掲書(의생활편), pp. 21-22.

布 등의 品目は 대부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襖衣의 種類를 禮葬과 俗葬으로 구분하여 比較해 볼때 男子의 襖衣는 道袍와 深衣의 有無가, 女子의 襖衣는 圓衫의 有無가 禮葬과 俗葬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직까지 宗家宅이나 禮를 차리는 집은 일반적인 俗葬과 차이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Ⅲ. 衣次와 色

과거에는 비단은 사대부층에서 사용하였고,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명주로 하였으며, 그 외의 소시민들은 삼베로 했는데, 최근에는 삼베의 사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명주와 삼베를 섞어 사용하고 있으며, 비단은 극상류층에서의 사용으로 그치고 있다. 이렇게 주로 삼베로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명주는 땅에 묻히면 썩지 않고 뻐에 불고 감기며, 삼베는 땅에 묻히면 잘 썩는다는 믿음 때문에 삼베가 좋다는 말이 있으면서부터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襖衣에 사용되는 옷감은 같은 品目이라도 각 지역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가지로 稱하기는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襖衣의 衣次와 色에 대해서 面談內容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별로 비교·인용하여 보고자 한다.

서울과 강원도 지방에서는 전부 삼베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곁은 명주, 안은 삼베로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비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襖衣의 種類 중에서 幘目과 握手는 반드시 紺正 貢緞이나 명주로 한다.<sup>55)-60)</sup>고도 하였다.

삼베는 뻣뻣하므로 마전을 하여 사용하는데, 2~3일동안 더운 물에 담가 물을 빼고, 말리고 밟고, 다듬이질을 하여 부드럽게 한 베를 사용하고 노란색 치자로 물을 들이거나 원하는 색으로 물을 들여 사용한다<sup>61)</sup>고 하였다.

충청남·북도에서는 곁과 안을 삼베로 하는 경우가 준비자의 30%정도이고, 곁을 명주, 안을 삼베로 하는 경우가 70%정도라고 하였다. 버선은 무명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무명이 하얗기 때문에 곁을 갈때 밝게 하기위한 것이며, 道袍는 삼베로, 圓衫은 명주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옷감의 색이 진하면 戶身에 물이 들기 때문에 玉色으로 물을 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幘目과 幅巾은 緞으로 하는데 이것은 머리와 얼굴 부분은 귀하게 여기는 貢緞으로 하는데 이것은 머리와 얼굴 부분은 귀하게 여기는 貢緞으로 가려야 한다는 믿음 때문<sup>62)-64)</sup>이라고 하였다.

전라남·북도에서는 곁을 명주, 안을 삼베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명주는 주로 素色 그대로이거나 玉色 물을 들인다.<sup>65)-70)</sup>고 하였다.

경상남·북도에서는 襖衣의 옷감으로 명주가 가장 좋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그 외에 곁은 명주, 안은 삼베로 하며, 전부 삼베로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여러 품목 중에서 버선은 안은 삼베 곁은 명주로 하는데 안을 명주로 하면 미끄러워서 제사에 다닐 수 없기 때문<sup>71)-76)</sup>이라고

55) 註 20), 39) 參照.

56) 註 10) 參照.

57) 성기희(女), 69세, 강원도 강릉시 거주, 1989. 7. 2. 본인과 면담.

58) 오한예(女), 75세,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거주, 1991. 9. 23. 본인과 면담.

59) 이종화(女), 87세, 강원도 양양군 조산리 거주, 199. 9. 24. 본인과 면담.

60) 안훈명(女), 61세,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거주, 1992. 9. 26. 본인과 면담.

61) 註 6) 參照.

62) 註 30), 47) 參照.

63) 註 16), 45) 參照.

64) 박성철(男), 75세, 충남 대전시 가양동 거주, 1990. 2. 12. 본인과 면담.

65) 양옥선(女), 74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거주, 1990. 2. 10. 본인과 면담.

66) 이석찬(男), 78세, 전북 전주시 서신동 거주, 1990. 2. 11. 본인과 면담.

67) 장기선(男), 84세, 전남 순천시 금곡동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68) 정순남(女), 81세, 전남 순천시 남정동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69) 장소애(女), 72세, 전남 순천시 남정동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70) 신상희(女), 60세, 전남 순천시 중앙동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71) 註 24) 參照.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襤衣의 옷감이 명주나 삼베이며, 주로 白色계통이고, 握手, 幘目만은 검정색<sup>79)</sup>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때 실제로 衣次가 삼베나 명주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순수한 100%의 삼베나 명주를 사용하지 못하고, 삼베 대용으로 면과 칩(또는 나무껍질)을 섞어 짜거나,<sup>80)·81)</sup> 면을 짜서 물들인 인조마포의 형태인 '가짜베'를 사용하고<sup>82)·83)</sup> 있었으며 명주대용으로 인조견을 사용<sup>84)·87)</sup> 하기도 하였고, 또한 당목<sup>88)</sup>이나 옥양목<sup>89)</sup> 등으로 襤衣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으로 볼 때, 襤衣의 衣次는 地域別로 전부 명주나 전부 삼베, 또는 곁이 명주 안이 삼베로 차이를 보이며, 각 가정의 경제능력이나 믿음, 예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비선은 준비자에 따라 옷감이 다르기도 하였다. 색에 있어서도 대개 명주나 삼베는 自然色 그대로이거나 玉色 물을 들이며 비단은 주로 白色으로 하지만 家庭의 習慣이나 故人の 希望에 따라 다르고<sup>90)</sup>, 白色에 가까운 연한 色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用 語

襤衣의 種類에 속하는 여러 品目들 중에서 같은 品目이 地域에 따라서 각각 다른 말들로 불려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동일하나 한 지역에서만 독특하게 불려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幘目, 五囊, 매장베, 圓衫, 斂, 補空, 握手, 襤衣 등의 명칭에 대한 것이다.

면담내용을 토대로 각 道別로 用語를 구분하여 보면 <表 3>과 같으며, 각각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서술하고자 한다.

##### 1. 幘目

幘目은 <表 3>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명칭이 면(面) 막(膜) 수, 명모, 맨모, 명목(膜目), 면(面)모, 명막수, 면포(面布), 낮보, 낮모, 드랑다리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膜(눈어울 '막')과 膜(눈감을 '명')의 의미를 幘目에서의 幘(덮을 '막')과 비교해 보면, 눈을 덮어서 어둡거나 눈감은 후에 덮게 되므로 근본적인 뜻은 같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사투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들리는 대로 전해 내려 오면서 여러가지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위의 명칭 중에서 경북 안동지방의 '낮보', '낮모', '드랑다리'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여겨진다.

##### 2. 五 囊

五囊은 <表 3>에서 볼 수 있듯이 명칭이 조발낙, 조발내기, 조발랑, 조발, 조발랭이, 조발영, 주머

72) 강병포(男), 66세, 경남 진주시 상대 1동 거주, 1990. 1. 17. 본인과 면담.

73) 이병순(女), 63세, 경남 진주시 상대 1동 거주, 1990. 1. 17. 본인과 면담.

74) 강수갑(男), 67세, 경남 진양군 금산면 거주, 1990. 1. 17. 본인과 면담.

75) 註 14), 34) 參照.

76) 한월순(女), 69세, 경북 안동시 안흥동 거주, 1990. 1. 18. 본인과 면담.

77) 신금순(女), 57세, 경북 안동시 안흥동 거주, 1990. 1. 18. 본인과 면담.

78) 김시우(男), 65세, 경북 안동군 거주, 1990. 2. 19. 본인과 면담.

79)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前掲書(제주도편), pp. 220-221.

80) 註 43), 44), 45), 49) 參照.

81) 권정순(女), 51세, 충남 대전시 동구 원동 거주, 1990. 2. 12. 본인과 면담.

82) 註 28), 29), 49) 參照.

83) 임 무(男), 47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거주, 1990. 2. 10. 본인과 면담.

84) 註 31) 參照.

85) 권만연(女), 64세, 경북 안동시 안흥동 거주, 1990. 1. 18. 본인과 면담.

86) 조휴문(男), 67세, 전남 승주군 주암면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87) 유계순(女), 64세, 전남 승주군 주암면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88) 註 33) 參照.

89) 註 28), 49), 68) 參照.

90) 若松實編, 韓國の冠婚喪祭. 日本, 高麗書林, 1982. p. 132.

〈表 3〉 各 道 別 로 본 用 語 의 名 稱 區 分

用 語 地 域	假 目	五 囊	매장베(敝布)	襪 衣	圓 衫	數 :	補 空	握 手
서울	면(面) 마수<막판구>		장베, 밧베<이강옥>					
강원	명모<염구자> 펜모<변동선> 명목<김화목>	조발낙<염구자> 조발내기<삼연섭>	맥시베<변동선> 멧 베<삼연섭, 김화목> 매상베<강술녀, 염구자>	수의, 호상옥, 죽음의 옷 <염구자, 변동선, 정화자, 박혜옥> 장래옷<삼연섭> 문안옷<김화목>	나삼<강봉순> 내삼<정화자>	엮하다 -잡장한다 <박혜옥, 진정남>	보투<김화목>	
충남	면모<이성우, 박성철>	조발랑<유영렬, 김명수>	매장<이성우, 유영렬>	맹인옷<권정순>				
충북	면모<박종민, 오영균, 송해만>	조발<박종민> 조발랭이<오영균> 조발영<송해만>	매장베, 장매 <오영균, 조성일>	수의, 들어가신분의 옷 <오영균>				
진남	명목<박정희, 최복녀> 명막수<박정희, 최난이>	주머니<박정희> 오낭<이춘영, 문영휴> 손톱싸개<수발락><막정희, 정봉기> 발톱싸개<조발락><막정희, 정봉기> 조발랭이<이춘영> 조 벌<별>랑<조휴문>	백시베<정봉기>	수의, 상복, 미능옷<박정희> 죽음의옷<이춘영, 조휴문, 문영휴> 수의복, 망인<메인, 맹인> 옷<정봉기> 장래옷<이갑순>	나삼<이갑순>			손싸개 <조휴문>
진북	명목, 면모<김철회, 임 부> 면포<布> <이태운>	오낭<김철회> 조발내기<정순봉> 조발웅<임 부> 조발랑<이하영, 이태운>	매장포<임 부>	평생옷<이태운>				
경남	면(面)모<이명길> 명모<허관순>	조발랑<허영복>	장베<이명길>	죽음의옷, 수의, 민데가는 옷 <이점이>				
경북	명모<박필술> 명목<김효중> 낫보<권만연> 낫모, 드랑다리<김송자>	주머니<김송자> 조발랑<박필술>	장포<김송자>	면옷, 수의<권만연, 김송자, 김효중> 죽음의 옷<조분수> 수복<아이들의 경우임> (김효중)	난삼<김동숙>			손잡, 손보 <한일순>

< > 안은 提 報 者 의 姓 名 임.

니, 오냥, 손톱·발톱싸개, 수발락·조발락, 조별(別)랑, 조발용, 小囊<sup>91)~92)</sup>, 오랑주머니<sup>93)</sup>, 爪甲囊<sup>94)</sup>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五囊이라는 것은 왼쪽 손톱(左手爪), 오른쪽 손톱(右手爪), 왼쪽 발톱(左足爪), 오른쪽 발톱(右足爪), 머리카락(頭髮)등을 넣은 다섯 개의 주머니라는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지역마다 비슷한 용어로 불려지고 있으며, 전남의 '조별랑(爪別囊)'은 따로 구별해서 넣는다는 의미로 '別'字를 사용하고 있어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이다.

### 3. 매장배

매장배는 <表 3>에서 볼 수 있듯이 명칭이 장매, 맏배, 맥시배, 매장포, 장배, 장포<sup>95)</sup>, 結束布<sup>96)</sup>, 束布<sup>97)~98)</sup>, 斂布<sup>99)</sup>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각 용어마다 '매장배'의 '埋'字나 '葬'字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4. 襚衣

襚衣는 <表 3>에서 볼 수 있듯이 명칭이 수의, 호상옷, 죽음의 옷, 장래옷, 문안옷, 맹인옷, 들어가신 분의 옷, 먼옷, 머능옷, 망인옷, 平生옷, 먼데 가는 옷, 襚服(아이들의 경우), 歲制之具<sup>100)</sup>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대부분 襚衣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강원도 지방의 '호상옷'은 저승에 갈 때 입는 옷이지만 혼례복같이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입는 옷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의 옷'은 죽음을 드러낸 말이기 때문에 전문 수의접이나 장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격이 낮은 말이라고 하였다.

'장래옷'은 장래에 입을 옷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문안옷'은 옷을 입고 來世에 문안드리러 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맹인옷'은 '망인(亡人)옷'의 사투리어이다. '머능옷'이나 '먼옷'은 먼 곳으로 한 번 가면 다시 오지않기 때문에 불려진 용어이며 머능옷을 '먼 데 가는 옷'으로 통용하기도 하였고, '평생옷'은 죽어서도 계속 입을 옷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린 아이의 경우는 '襚服'이라고 하여 어른보다 소홀한 의미를 지닌 用語로 사용되고 있었다.

### 5. 圓衫, 斂, 補空, 握手

圓衫은 살아있을 때는 圓衫이라 稱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나삼', '내삼', '난삼'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斂은 '斂한다'라는 말을 '감장(斂: 덮을 감, 藏: 감출 장)한다'라고 표현하여, 덮어서 감춘다는 의미는 같았다.

'補空品을 넣는다'는 말은 '補投한다'고 하였고, 補空品으로는 故인의 옷이나 여러 겹으로 싼 나무 껍질, 짚, 재류(삼을 벗기고 난뒤의 속대), 새솜, 白紙를 집어 넣는다<sup>101)~102)</sup>고 하였다.

握手는 명칭이 손싸개, 손집, 손보 등으로, 손을 싸는 용도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하나의 용어가 의미는 같지만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불려지거나,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용어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1) 金春東, "韓國禮俗史". 韓國文化史大系. IV. (서울: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64) p. 326.

92) 金宅圭, 成炳禧, 韓國民俗研究論文選. 서울, 一潮閣, 1982. p. 293.

93) 嶺南大人文科學研究所, 大邱의 禮樂. 大邱, 嶺南大 出版部, 1988. p. 114.

94) 金聖培, 韓國의 民俗. 서울, 집문당, 1980. p. 215.

95) 李鍾哲, "陰城良俗마을의 喪禮". 韓國民俗學. 12輯. (서울: 民俗學會, 1980) p. 295.

96) 三陟郡, 三陟郡誌. 1985. p. 98.

97) 京和社 編輯部, 家禮寶鑑, 서울, 京和社, 1983. p. 50.

98) 李家源, 冠婚喪祭. 서울, 三榮文化社, 1985. p. 60.

99)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前掲書(전라북도편). p. 64.

100) 崔承洵·李基遠, 太白의 禮俗(上). 江原道, 江原日報社, 1977. p. 117.

101) 張瑄鎮, "山淸地方의 喪禮俗考". 國語國文學. (釜山: 釜山大 國文科, 1988) p. 345.

102) 趙陽弟, 冠婚喪祭. 서울, 一信書籍公社, 1980. p. 82.

## V. 結 論

現行 襪衣의 實態를 襪衣의 種類, 衣次와 色, 用語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 본 바 다음과 같다.

1. 襪衣의 種類를 禮葬과 俗葬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볼 때 男子의 襪衣는 道袍와 深衣의 有無가, 女子의 襪衣는 圓衫의 有無가 禮葬과 俗葬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직까지 宗家宅이나 禮를 차리는 집은 일반적인 俗葬과 차이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2. 衣次에 있어서는 안팎을 전부 明紬로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삼베를 썼거나, 곁은 明紬로 썼고 안은 삼베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色에 있어서는 삼베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물들이지 않거나 물을 들일 경우 玉色을 썼으며 白色에 가까운 연한 色을 썼다. 다만 이의 경우는 가정의 습관이나 故人의 生存時의 희망에 따라랐으며 幘目은 黑色貢緞으로 쓴 일이 많았었다.

3. 用語에 있어서는 하나의 용어가 의미는 같지만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불려지거나,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용어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現代는 喪禮法의 변화로 인하여 襪衣에 있어서는 다양한 面을 보이고 있으나 예의와 法도를 중시하고 경제력을 勘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思料된다.

現行 襪衣의 구조는 개화기 이후 우리의 의생활이 개조되었어도, 전통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다만 옷감과 색, 수량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現 實정에 맞는 襪衣의 種類라면, 男子는 幅巾, 幘目, 두루마기, 道袍, 道袍띠, 赤衫, 저고리, 속바지, 바지, 褻肚, 行纏, 허리띠, 댕님, 버선, 握手, 베개, 五囊, 天衾, 地褥, 斂布, 小斂衾 등이고, 女子는 幘目, 두루마기, 圓衫, 圓衫띠, 赤衫, 저고리, 속속곳, 바지, 단속곳, 속치마, 걸치마, 褻肚, 버선, 握手, 베개, 五囊, 天衾, 地褥, 斂布, 小斂衾 등을 갖추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衣次는 삼베와 명주 중에서 가정의 형편이나 개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色은 연한 色을 중심으로 하였으면 한다.

이상으로 現行 襪衣에 關한 內容 중 種類, 衣次, 色, 用語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現行 襪衣의 치수 및 형태, 襪衣에 關連된 禁忌사항, 襪衣의 保管法등은 다음의 研究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京和社 編輯部, 家禮寶鑑. 서울, 京和社, 1983.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大觀, 第2卷. 서울,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0.  
 高廷其, 冠婚과 喪祭. 서울, 後里出版社, 1982.  
 權桂淳, “李朝時代宮中喪服制度考”. 研究論文集. (大邱; 曉星女大, 1974)  
 金聖培, 韓國의 民俗. 서울, 집문당, 1980. 金英淑 編著, 韓國服飾史 辭典. 서울, 民文庫, 1988.  
 金春東, “韓國禮俗史”, 韓國文化史大系. IV. (서울;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1964)  
 金宅圭·成炳禧, 韓國民俗研究論文選, 서울, 一朝閣, 1982.  
 金漢重, 安東誌, 서울, 故鄉文化社, 198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1冊. 全南篇. 서울. 文化財管理局, 1968.  
 \_\_\_\_\_, 上揭書. 2冊, 全北篇. 1969.  
 \_\_\_\_\_, 上揭書. 3冊, 慶南篇. 1971.  
 \_\_\_\_\_, 上揭書. 4冊, 慶北篇. 1972.  
 \_\_\_\_\_, 上揭書. 5冊, 濟州篇. 1973.  
 \_\_\_\_\_, 上揭書. 6冊, 忠南篇. 1973.  
 \_\_\_\_\_, 上揭書. 7冊, 忠北篇. 1974.  
 \_\_\_\_\_, 上揭書. 8冊, 江原篇. 1976.  
 \_\_\_\_\_, 上揭書. 9冊, 京畿篇. 1977.  
 \_\_\_\_\_, 上揭書. 10冊, 서울篇. 1978.  
 \_\_\_\_\_, 上揭書. 11冊, 黃海·平北·平南篇. 1979.  
 \_\_\_\_\_, 上揭書. 12冊, 咸北·咸南篇. 1980.  
 \_\_\_\_\_, 上揭書. 17冊, 衣生活篇. 1986.  
 \_\_\_\_\_, 上揭書. 18冊, 禮節篇. 1987.  
 三陟郡, 三陟郡誌. 1985.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85.  
 成耆姬, “殮襲考”. 論文集. 第 8輯. (江陵; 關東大, 1980)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大邱의 禮樂. 大邱, 嶺南大 出版部, 1988.  
 劉寬順, “우리나라 襪衣에 關한 研究 - 朝鮮朝를

中心으로—” 博士學位 論文. (서울: 中央大大學院, 1990)

———, “韓國襖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第 17號. (서울: 韓國服飾學會, 1991)

李家源, 冠婚喪祭. 서울, 三榮文化社, 1985.

李鐘哲, “陰城良俗마을의 喪禮.” 韓國民俗學. 12 輯. (서울: 民俗學會, 1980)

張瑄鎮, “山淸地方의 喪禮俗考”. 國語國文學. (釜山: 釜山大 國文科, 1988)

張哲秀, “冠婚喪祭”. 慶北 北部地域의 傳統文化. (安東: 安東大 安東文化研究所, 1988)

全英淑, “壽衣에 關한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第 1卷 2號. (서울: 韓國衣類學會, 1977).

趙陽弟, 冠婚喪祭. 서울, 一信書籍公社, 1980.

崔承洵·李基遠, 太白의 禮俗(上). 江原道, 江原日報社, 1977.

崔喆·韓玉洙·白弘基, 太白의 禮俗(下). 江原道, 江原日報社, 1977.

春川文化院, 春洲誌. 1984.

華川文化院, 華川郡誌. 1988.

會寧郡民會, 會寧郡誌. 1978.

高福男, “韓國における 襖衣の 研究”. 東アジア における 宗教と 民俗. (東京: 吉川弘文館, 1981)

若松寅編, 韓國の 冠婚喪祭. 日本, 高麗書林, 1982.

## ABSTRACT

### A Study on the Current Shroud ( I )

Yoo, Kwan Soo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Women Culture  
Dong-U Junior College

Actual conditions of current shroud are as follows.

1. The kinds of shroud in formal funeral ceremonies were more variable than the informal ceremonies.
2. The cloths of the shroud were all Myongchu or all Sambe inside and outside or the inside was Sambe and the outside was Myongchu. The color was light color center upon the white color and black Kongtan was used mostly in Myokmok.
3. Terms of the shroud were different in each region.
4. The kinds of recommended men's shroud were Chōksam, Chōkori, Naeko, Ko, Torumaki, Topo, Topotae, Mal, Myokmok, Aksu, Ch'im, Ch'ōnkum, Chiyok, Ryomp'o, Soryomkum, Haengchōn, Onang, Tae, Taennim, Pokkōn, Kwatu, etc. And the kinds of recommended women's shroud were Chōksam, Chōkori, Soksokkos, Ko, Tansokkos, Naesang, Oesang, Turumaki, Wonsam, Wonsamtae, Mal, Myokmok, Aksu, Ch'im, Ch'ōnkum, Chiyok, Ryomp'o, Onang, Soryomkum, Kwatu, etc.